



# 재단법인 조선연무관 권법부의 설립과 전개 양상 연구 : 1945~1950년을 중심으로

이승수<sup>1\*</sup>

1. 중앙대학교, 교수

## 요약

**목적** 본 연구는 일제하, 광복, 미군정기 등 역사적 전환기를 경험한 재단법인 조선연무관 권법부의 설립 과정과 전개 양상을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방법** 연구 방법은 당시 발간된 신문(조선신문, 경성일보, 동아일보 등), 조선연무관에 관해 기록된 자료들(이경석의 기록물), 문헌자료와 종래의 선행연구를 활용한 역사적 문헌 연구로 이루어졌다. 다만 문헌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본 논고에서는 1945년부터 1950년까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결과** 첫째, 이경석이 1946년 3월 2일 재단법인 조선연무관 권법부를 설립하여 수련생에게 권법을 지도하기 시작했고, 승단 심사를 통해 수련생의 실력을 가늠했으며, 계절 훈련, 연무대회 등을 통해 수련생들의 기량을 강화해 나갔다. 둘째, 이경석은 1946년 이후 조선연무관 권법부의 전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권법의 역사성을 활용하였다. 특히 당수, 공수에서 권법으로의 명칭 변경은 일본 무도 금지라는 당시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선택지였다. 셋째, 재단법인 조선연무관 권법부의 초기 사범은 이경석에 의해 고용된 전상섭이었다. 그가 지도한 권법은 전통적인 한국의 권법이었는지, 중국의 권법이었는지, 아니면 일제하에 소개된 공수도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결론** 재단법인 조선연무관 권법부는 광복 후에 새롭게 창설된 단체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권법부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놓고 볼 때 현대 태권도의 모체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주제어** 재단법인 조선연무관 권법부, 이경석, 전상섭, 미군정기, 권법

## I. 서론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함에 따라 한국은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하였다. 하지만 바로 미군정기(1945년 9월 8일~1948년 8월 15일)에 접어들었다. 한국은 미군정기가 끝나고 한국 정부가 수립된 지 채 얼마 지나지 않아 1950년 6월 25일 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경험했다. 광복 이후부터 6.25전쟁 종료까지, 국내 무예(혹은 무도) 단체는 그야말로 격동의 시기에 놓여있었다. 바꾸어 말하면, 일제하에 존재했던 일본 무도의 연속성과 단절성, 쇠퇴한 한국 무예의 전통성이 혼재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

한 시기였다. 또한 이 시기에는 일제하에 한국인이 운영하던 무예 단체는 새로운 출발을 도모하는 시기였고, 신흥 무예 단체가 설립되는 시기이기도 했다. 그러한 사례 중 하나에 태권도의 모체관으로 불리는 조선연무관도 포함되어 있었다.

2023년 7월 현재, 국기원 홈페이지에서 제시하고 있는 '태권도 역사' 소개를 보면 크게 '태권도의 전통, 한국 맨손 무예사(고대~1945)'와 '현대 태권도사'로 이분되어 있다. 또 현대 태권도사는 다시 '초기 태권도(~1960)', '단합의 결실(1961~1970)', '비약적 발전(1971~1985)' 등 총 다섯 시기로 구분되어 있다.<sup>1)</sup> 여기서 초기 태권도의 시작이 언제부터인

\* ethniclee@hanmail.net

1) <https://www.kukkiwon.or.kr/front/kor/main.action> 2023년 7월 14일 검색.

지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 즉 1946~1959년 사이의 태권도 역사는 애매모호하게 설정되어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현대 태권도 역사를 논하기 위해서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 까닭은 이 시기가 현대 태권도 역사를 논할 때 하나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광복 이후 당시의 혼란스러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새롭게 설립된 무예(혹은 무도) 단체의 설립 주체는 누구인지, 설립일은 언제인지, 그리고 설립 배경은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점이 많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본 논문에서는 일제하, 광복, 미군정기 등을 거치는 역사적 전환기에 태권도의 기간도장으로 위치 부여된 재단법인 조선연무관 권법부가 누구에 의해, 언제, 어떻게 설립되었고, 또 그 전개 양상은 어떠한지에 대해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역사적 전환기의 조선연무관 권법부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역사적 관점에서 분석, 고찰한 연구가 있는데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다. 그 대표적 연구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허인옥(2007)은 「태권도 모체관 중 “조선연무관 권법부”와 “중앙기독교청년회 권법부”의 형성과 변천에 관한 연구」에서 조선연무관 권법부를 분석, 고찰하였다. 그는 조선연무관 권법부의 창설자는 전상섭으로 보았고, 이 단체는 6·25 이후 지도관과 한무관으로 파생했다고 논하였다.

다음으로 김산·박세현(2015)은 「초창기 태권도 교본 연구」에서 광복 이후 태권도의 기간도장(基幹道場)으로 위치 부여된 청도관, YMCA 권법부, 무덕관, 송무관, 조선연무관 5대 도장을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초창기 태권도 도장에서 학습된 내용과 태권도에 대한 인식을 태권도 교본을 통해 비교 연구했다. 그런데 조선연무관과 관련해 심도 있는 논의는 전개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김영선(2018)의 「현대 태권도의 원류, ‘오대관’의 형성과 사적(史的) 의의에 관한 연구」와 김영선·여인성(2020)의 「현대 태권도의 원류, 조선연무관 권법부의 명칭과 창립 일자에 관한 연구」가 있다. 전자는 5대 도장 중 하나인 조선연무관 권법부의 명칭, 시기, 발달 과정 등을 조망하였다. 후자는 조선연무관 권법부의 명칭 변경 양상과 창립 일자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두 논문의 공통된 한계점은 권법(拳法)이란 용어를 주로 사용했던 당시의 사회적 맥락에 대한 검토가 충분치 이루어지지 않은 점, 권법부의 창립과 전개를 둘러싼 운영 주체에 대한 검증이 미

비한 점 등이다.

한편, 일제하 조선연무관에 대해 고찰한 몇 편의 논문이 있다. 먼저 조문기·임석원(2009)의 「일제강점기 조선연무관의 활동에 관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일제하 조선연무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광복 이후 조선연무관의 변화에 대한 논의는 없다. 또 같은 시기 임석원·조문기(2009)의 「이경석(李景錫)의 생애와 유도(柔道)사상에 관한 연구」는 일제 하와 광복 후 이경석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논하였으나 주로 일제하 이경석의 유도 활동에 초점이 맞춰있고, 권법부에 관한 논의는 전혀 없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연무관 권법부를 둘러싼 선행연구에서는 이경석과 직접적으로 결부시켜 논의를 전개한 사례는 거의 없다. 또 이경석에 관한 연구에서는 시기를 일제하 혹은 광복 후로 한정하여 그의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조선연무관 권법부에 관한 심층 분석은 하지 못했다. 나아가 조선연무관 권법부에 관해서도 선행연구에서는 전상섭에 주안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했다.

이들 선행연구와 달리 본 논문에서는 1945년 광복 이후부터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에 집중하여 재단법인 조선연무관 권법부의 설립과 전개 양상에 대해 이경석에 초점을 맞추어 심층적으로 고찰한다. 구체적으로 다음 세 가지 내용에 대해 분석한다. 1) 일제하 한국 유학생에 의한 무도의 전개 양상과 조선연무관의 활동 및 당수술(공수도 포함)의 보급 양상, 2) 미군정기에 재단법인 조선연무관이 설립되면서 권법이 전면에 등장하게 된 사회적 배경, 3) 권법을 지도, 보급한 인물에 대한 실증적 검증이다.

이와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논문의 방법은 당시 발간된 신문(조선신문, 경성일보, 동아일보 등), 조선연무관에 관해 기록된 사료들(이경석 기록물)을 제시하고, 당시 발간된 당수술(唐手術) 등 각종 문헌자료와 종래의 선행연구를 원용한다. 단 문헌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본 논고에서는 1945년~1950년까지에 집중하여 살펴보고, 일부 추론 방법을 활용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역사적 전환기에 재단법인 조선연무관 권법부가 관련 주체들에 의해 어떻게 위치 부여되었는지, 또 그 변화 양상은 어떠한지를 명확히 밝히는 작업은 연구사적으로 유의미하다. 또 이 연구는 현대 태권도 전사(前史)의 역사적 경위를 이해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한국 무예사 연구의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초기 태권도 발전사를 재구성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 II. 일제하 조선연무관과 당수술

### 1. 일제하 조선연무관

이 절에서는 일제하 한국인에 의해 기독교청년회관(YMCA)의 무도(유도, 검도)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그 핵심 인물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그다음, 이경석의 조선연무관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때 이경석이 1940년에 직접 작성한 글<sup>2)</sup>을 토대로 후술하는 당수술과 관련한 한국의 무예 단체(기독교청년회관과 조선연무관) 간의 관계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일제하 한국에 유도, 검도가 처음으로 유입된 시기는 1907년 무렵이었다. 동경에 유학하여 형설의 공을 쌓고 돌아온 유근영(劉根榮)이 종로 기독교청년회관(YMCA) 내에 유도 도장을 설치한 것이 한국 무도계의 효시였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경에서 유학생으로서 무도를 배운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여들게 되었다. 여기에는 당시 시대적 조류의 영향도 있었다. 새로운 시대에 눈을 뜨게 된 당시 한국인은, 한편으로 신학문의 도입과 더불어 기존의 문약(文弱)한 폐습 타파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유학생들 가운데 유근영의 뒤를 이어 기독교청년회관의 도장을 확장해 온 대표적 인물이 나수영(羅壽泳)이었다. 그는 1912년까지 지도했다. 그의 뒤를 이어 제자 김상익(金相翊)이 후계자로서 1920년까지 이어왔다.

한편 거의 비슷한 시기에 유근영의 제자 김홍식(金弘植)은 개성에 광무관을 설립했다. 또 동기인 제자 박재영(朴在英)은 김상익의 뒤를 이어 기독교청년회관 도장을 운영했다. 그 후에는 강락원(姜樂遠)이 약 1년간, 한진희(韓軫熙)는 약 3년간 도장을 지도해 왔다. 그 후 1923년부터 장권(張權)이 17~18년 동안 도장을 주도적으로 지도해 왔다.

또한 1921년에는 협성실업학교(協成實業學校) 지하실에 조선무도관(朝鮮武道館)이 설립되었다. 설립자는 유식렬(劉軾烈), 박재영(朴在英), 강락원(姜樂遠), 한진희(韓軫熙), 김태주(金泰柱) 등이었는데 모두 유도 5단이였다. 1924년에는 이 도장을 강락원의 사택으로 옮겨 한층 설비

를 확충하게 되었다. 강락원은 현재(1940년) 강도관(講道館) 조선지부의 사범이었고 5단이였다. 1924년에는 한진희가 독립해서 강무관을 설립하여 청년회관에서 독립한 것도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다.

이러한 선배들의 노력을 계승하여 이경석이 조선연무관을 설립한 해는 1931년이였다. 그는 일본 중앙대학교 법학부 재학 중에 도쿠산보(德三寶)의 도장에서 7년간 유도를 수련했다. 한국에 귀국하여 문약한 악폐를 타파할 필요성을 느껴, 4만 원의 사비를 들여 조선연무관을 설립했다. 당시 도장 규모는 자타가 인정할 만큼 이상적이었다. 관원은 1940년 당시 800여 명에 달했다. 그 가운데 유도 유단자는 150명이었고 1단부터 5단까지 다양했다. 4단과 5단 취득자는 서울 시내 여러 중학교에서 유도지도자로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보성전문(현, 연세대학교), 보성중학교에는 조선연무관 출신 배강렬(裴康烈), 대동상업(大同商業)에는 한병철(韓炳喆), 배재중학교에는 이동수(李東壽), 중앙중학교에는 김현국(金鉉國), 휘문중학교에는 이상민(李商敏) 등이 각각 지도하고 있었다. 이들 가운데 이상민만 3단이였다.

조선연무관은 일반부, 소년부, 여자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특히 세간의 주목을 받은 여자부에는 1940년 당시 9명의 엘리트 여성이 수련하고 있었다. 이러한 부 외에 '신사수련단'도 별도 설치하여 인격이 높은 엘리트층 인사가 수련하고 있었는데 이경석은 주로 호신술을 가르쳤다. 또한 이경석은 조선연무관을 50만 원의 재정을 갖춘 재단법인을 설립한 계획을 세워 여러 가지 구체적 안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다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조선연무관은 일본무덕회에 통합되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일제하 한국인에 의해 운영된 무도(유도, 검도) 단체는 초기에 일본에서 무도 교육을 받은 인물들이 중심이었다. 특히 기독교청년회관(YMCA)에서의 무도 보급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공수도 보급의 토대가 되었다. 즉 일제하 일본에서 무도 교육을 받은 유학생들을 통해서 한국인은 처음으로 무도, 도(道)라는 개념을 접하게 되었고, 그 규범이나 정신주의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西脇, 1997:60). 이와 같은 움직임과 연동하여 이경석과 그가 설립한 조선연무관은 유도의 보급, 발전을 통해 강건한 한국인의 체력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 2. 한국 내 일본 당수술 소개

조선연무관의 전개 양상과는 별개로 일제하 한국에서는

2) 이 내용은 이경석이 1940년에 무도 잡지 『朝鮮武道』에 게재한 글, 「한반도 무도의 연혁과 조선연무관(半島人武道沿革と我道場)」을 토대로 필자가 재구성한 것임을 밝혀 둔다(이경석, 1940). 아울러 조선연무관의 활동 및 이경석의 생애에 대해서는 조문기·임성원(2009)의 「일제강점기 조선연무관의 활동에 관한 연구」와 임석원·조문기(2009)의 「이경석(李景錫)의 생애와 유도(柔道)사상에 관한 연구」를 참조 바란다.

다양한 일본 무도가 소개되었는데 그중 하나가 당수술(唐手術)이다. 당수술(唐手術)이 미디어를 통해 가장 먼저 소개된 것은, ‘근대 여성 당수술 연습(モダンガールが『唐手術』のお稽古)’이라는 제목의 1927년 8월 26일 朝鮮新聞 기사다. 기사에서는 동경에 설립된 후나고시 기친(富名腰義珍)<sup>3)</sup>의 도장에서 여성들의 당수술 연습 상황을 사진 함께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에 비해 다음 기사들은 한국에서 당수술을 실제 소개한 사례들이다. 먼저, 京城日報 1929년 10월 4일 ‘당수술 오미야 씨 방한(唐手術の大宮氏來る)’이라는 기사이다.

유구(琉球) 독자의 무술로서 알려있는 당수술이 뛰어난 오미야 류스케(大宮龍介) 씨가 지난달 30일 조선과 만주 각지를 돌리보는 도중 경성에 들렀다. 그는 심신 수련과 무사도 고취(중략)를 위한 당수술을 소개하기 위해 본사를 방문하여 당수술 및 열탕(熱湯)을 소개했다. 당수술은 교육 참고 자료로서도 의의 있다. 이번 경성 체류 기간은 3주간 예정인데, 희망자에게 강습회를 열어 지도할 예정이다.

이 기사는 일본 유구(현 오키나와)의 무술인 당수술을 오미야 류스케(大宮龍介)가 경성일보사에서 소개한 사례이다. 다음으로 京城日報 1933년 5월 10일 광고란에 후나고시(富名腰)의 책, 『당수술(唐手術)』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1925년 발간된 304쪽 분량이다. 책의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당수(唐手)는 공수(空手)다. 즉 권골(拳骨)을 여법(如法) 중형으로 잡아서 돌파하는 것만으로 아무리 강한 적이라도 반드시 상대를 제압하는 효과 100%의 호신술이다. 천하무적의 호신술을 상세하게 해설한 것은 이 책뿐이다 (광고 사진 있음).

이 책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지면 관계상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다만 여기서는 후나고시(富名腰)가 당수와 공수를 같은 의미로 병기(併記)하고 있었다는 점만 지적해 둔다. 그는 이 책의 서문에서 당수 관련 도서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피력했다.

‘천하가 태평한 시기에는 창검(槍劍) 대신에 도수공권(徒手空拳)으로 신체를 단련하고, 보호하는 문화적 무술 이른바 唐手(空手)를 요구하게 되었다. 나는 그동안 항상 사람들을 접하고, 만날 기회가 있을 때마다 唐手(空手)를 소개한

책이 필요함을 느꼈고, 멀리 있는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는 책의 필요성 또한 느꼈다’(富名腰 1925).

고 하면서 당수술을 소개했다. 후나고시(富名腰)는 1925년 책을 출판할 당시만 해도 당수와 공수를 구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즉 당수와 공수를 같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 후 후나고시(富名腰)는 1935년에 당수를 공수로 통일하게 된다(허인옥, 2007). 다음은 동아일보 1937년 7월 11일 ‘척대 공수부 부민관에서 공연(拓大空手部 府民館<sup>4)</sup>서 公演)’이라는 기사이다.

일본무덕회조선지방본부(日本武徳會朝鮮地方本部)에서는 금번 척식대학 공수부(今番拓殖大學空手部)를 초빙(招聘)하여 오는 십 오일 오후 7시부터(十五日午後七時) 경성 부민관에서 공수도 연무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척대(拓大) 공수부는 후나고시 기친(富名腰義珍)사범 이하 부원 11명으로서 공수 기술의 극의(極意)를 발휘하여 일반에게 소개 예정.

위 내용은 일본무덕회 조선지방본부에서 후나고시(富名腰)의 11명의 척식대학 공수부 구성원을 초청하여 연무대회를 부민관에서 개최한 것이다. 이 행사는 당시 일본 무도를 총괄하는 정부 산하 단체인 일본무덕회가 조선지방본부에서 후나고시(富名腰)의 공수도를 한국에서 공식 인증한 자리이기도 했다. 다음은 동아일보 1937년 8월 13일 기사 ‘청년회 유도부(青年會柔道部)에서 공수도 실제 시범(空手道實際示範)’이다.

종로중앙기독교청년회유도부(鍾路中央基督青年會柔道部)에서는 오는 13일 오후 8시반 동회관 유도장(同會館 柔道場)에서 입명관대학(立命館大學) 공수도 사범 야마구치(山口剛玄) 씨를 초청하여 공수도(空手道)의 대의 및 실제 시범을 행하게 되었는데 일반의 참관도 환영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1937년 8월 15일 기사 ‘空手道 示範 昨夜, 盛況裡에 舉行’이다.

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유도부에서는 첫 시험으로서 입명관대학 공수도 사범 야마구치 고젠(山口剛玄) 씨를 초청하여 공수도(空手道)의 대의와 실제 시범을 일반에게 관람시키는 모

3) 후나고시 기친(富名腰義珍)은 船越義珍으로 개명하기 이전의 이름이다.

4) 부민관(府民館)은 경성부(京城府)가 경성에서 강연회, 연극·영화·음악·무용 등을 공연할 만한 공연장의 필요성에 따라 경성전기주식회사의 기부금으로 태평로 1가에 세운 극장이다.

임을 지난 13일 오후 8시 반부터 종로청년회유도장에서 다수 참관자가 모인 가운데 열었는데 처음 보는 무술의 일종인 만큼 만당의 흥미를 끌었다 한다.

1937년 8월의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기사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다만 7월에 방한한 후나고시(富名腰)와 달리 야마구치(山口)가 초청받았다. 그의 나이 28세 때의 일이다. 야마구치(山口, 1909.01.21.~1989.05.20.)는 가고시마현(鹿児島縣) 출신으로 어릴 때부터 검술(薩摩示現流)과 유술 등 무도를 배웠다. 또 14세부터는 오키나와 출신 마루다 다케오(丸田武雄) 씨로부터 가라테(空手)를 배우기 시작했다. 1929년에는 교토시에 가라테도장을 설립했고, 같은 해 리츠메이칸대학법과(立命館大学法科)에 입학하자 스모부와 응원단에 적을 두면서 당수술연구회(空手道部)를 창설했다. 1937년 대학을 졸업하고, 법무사로 활동했다.<sup>5)</sup> 이해는 야마구치(山口)가 수련한 당수술이 공수도로 명칭을 바꾸어 일본무덕회로부터 인준을 받은 해였다. 이를 계기로 1937년 8월에 한국에서 시범을 보인 것은 당수술이 아닌 공수도였다. 이는 단순한 명칭 변경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정부 산하 무도 단체였던 일본무덕회에 공수도로 수렴되었음을 뜻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앞서 조선연무관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기독교청년회관(YMCA) 유도부는 일본에서 유도를 배운 유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유도를 수련 지도해 왔던 곳이었다. 이점은 일본인에 의한 일본 공수도 시범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제하 한국에서는 당수술이 1920년대 말부터 관련 책 소개를 비롯하여 그 시기와 장소, 그리고 초빙 주체를 달리하여 시범, 연무대회 등의 형태로 알려졌다. 특히 1937년에는 이미 일반인을 대상으로 당수술, 공수도 등의 이름으로 두 차례 소개되었다는 점은 중요하다. 한 번은 일본무덕회 조선지방본부에서 주최한 것이었고, 다른 한 번은 기독교청년회 유도부에서 주최한 행사라는 점이다. 전자는 주로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행사였고, 후자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행사였다. 당수술 혹은 공수도라는 무도를 통해 한국인과 교류하였다는 것은 한국인의 관심을 끌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또한 기독교청년회 유도부의 초청에 의한 리츠메이칸대학 공수도부와 교류는 일본 공수도 보급 역사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경석은 일제하 당수술, 공수도가 한국에

소개된 사실에 대해 주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까닭은 당수술, 공수도의 소개가 서울에서만 있었고, 그가 운영하던 조선연무관과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수도의 시범과 교류는 그 후 더 이상 기사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1937년 공수도 시범 기록을 통해 보면 광복 이후, 태권도 기간도장에서 기술 지도가 열렸을 당시 사용한 공수도라는 명칭은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정정원, 2016). 즉 당수, 공수라는 용어는 일제하에 한국에서 사용해 왔고, 광복 이후, 일부 도장의 설립과 더불어 사용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광복 이후 초기에는 당수(공수)를 주로 사용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권법이란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 이는 당시 권법을 가르친 기독교청년회관(YMCA) 권법부와 후술하는 재단법인 조선연무관 권법부의 연무대회, 심사, 계절 훈련 등의 활동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정정원, 2016).

### Ⅲ. 재단법인 조선연무관의 설립과 권법부

#### 1. '조선연무관'에서 '재단법인 조선연무관'으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까지 일본 유도는 일본 정부에서 직접 간섭하는 일본무덕회와 민간 유지로 구성 시행되는 강도관 유도 두 계통이 있었다. 한국에서는 조선총독부 경무국에서 일본무덕회 조선지방본부를 직접 간섭하여 경찰의 관리하에 두었다. 한편 강도관 조선지방본부는 민간 체육단체로서 조선총독부의 직접적인 관리 대상이 아니었다. 단순한 민간 스포츠로서 많은 한국인이 유도를 수련했다. 또한 강도관 조선지부는 한국인과 일부 일본인의 기부행위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모든 주권은 일본인이 장악하고 있었다. 강도관 조선지부의 핵심 임원은 대부분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었고, 조선인은 소수만이 하급 지위에 있었다. 그러다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하게 되자, 강도관 조선지방본부 임원들은 급하게 강도관 조선지방본부 중앙도장을 처분하게 된다. 이때 일련의 과정에 개입하여 강도관 조선지방본부 중앙도장을 인수한 인물이 이경석이었다.<sup>6)</sup> 앞 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그는 당시 조선연무관을 운영하고 있었다.

5) <https://ja.wikipedia.org/wiki/山口剛玄>

이경석은 재단법인 강도관 조선지부의 기부행위 제20조에 의하여 제1조의 유도의 발달 보급 조항 이외에는 평의회 의결로서 변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광복 직후 이경석은 강도관 조선지부를 인수한 후 명칭과 기타 조항을 변경했다. 명칭은 조선연무관에서 재단법인 조선연무관으로 변경했다. 임원은 한국인 임원 중 가장 역할이 많고 한국인 사이에서 유도 보급에 가장 유력한 공로자였으며 조선연무관장인 이경석을 중심으로 임원 변경하여 1945년 10월 10일부로 법원에 등기를 마쳤다(이승수, 2018).

일본이 전쟁에서 패망함에 따라 재단법인 강도관 조선지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재단법인 조선연무관이 탄생하게 되었다. 재단법인 조선연무관 구성원과 그 역할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45년 10월 8일에 제정된 '재단법인 조선연무관 기부행위' 제5조에 따르면 재단의 임원은 이사 7인 이내, 감사 2인, 평의원 약간 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사는 이사장 1인을 호선하는데, 이사와 감사는 평의회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다. 다만 이사와 감사는 겸임할 수 없다. 평의원의 자격은 조선연무관 설립자, 조선연무관 설립자가 추천한 자(20인 이내), 일금 오천 원 이상 기부자 중에서 조선연무관장이 추천한 자(15인 이내)이다. 임원의 임기는 3년이지만 조선연무관 설립자인 평의원은 종신이다.

이사는 재단을 대표 총괄하고, 이사장의 유고 시에는 그가 지명한 이사가 대리한다. 평의회회는 재단의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는데, 평의회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평의회회는 평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소집할 수 있다. 의사는 출석원의 과반수로서 결의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평의원은 본 재단의 재산 및 업무의 상황을 검사할 수 있다. 1945년 10월 8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재단법인 조선연무관을 설립하였다. 당시 재단법인 조선연무관의 이사장은 배강렬이었다.

이같이 재단법인 조선연무관은 일반적인 재단법인의 임원은 이사, 감사, 평의원,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조직 구성 방식은 재단법인 강도관 조선지부의 구성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었다.

## 2. 재단법인 조선연무관 권법부의 설립과 활동

### 1) 재단법인 조선연무관 권법부의 설립

어떤 무도 단체에서 새로운 무도를 주체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제반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인적 구성은 물론이고 관련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다. 재단법인 조선연무관을 설립하여 유도부를 운영해 왔던 이경석은 1946년 3월 2일 새롭게 권법부를 설립했다. 그런데 후술하는 바와 같이 종래의 선행연구에서는 재단법인 조선연무관 권법부의 설립자를 전상섭으로 소개해 왔다. 이 절에서는 이경석과 전상섭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이경석이 재단법인 조선연무관 권법부의 설립자이자 실질적인 운영 주체였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이경석의 권법부 설립을 둘러싼 사회적 배경, 이경석의 권법 인식론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에서 1945년 8월 패망함에 따라 연합국최고사령부(GHQ)의 민주화 정책에 의해 무도는 금지되었다. 이를 계기로 무도를 총괄하는 단체로서 일본 정부의 통제하에 있었던 일본무덕회는 1946년 10월에 해산되었다. 그리고 1947년에는 1,300명이 넘는 일본무덕회 관계자들이 공직에서 추방되었다. 또한 1945년 11월에는 학교 무도가 전면 금지되었다. 구체적으로 검도, 유도, 궁도 등의 수업을 금지하였고, 정규 과목 이외의 무도 연습도 금지하였다. 게다가 일반인을 포함한 학교 또는 부속시설에서의 무도 연습도 금지되었다. 학교 무도의 금지는 무도 지도자의 생계가 걸린 문제였다. 1946년 8월에는 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체육에서도 검도·유도·궁도 등을 총괄하는 무도 명칭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되었다(井上俊, 2004).

이와 같은 일본 무도의 상황은 한국에 전달되었는데, 新朝鮮報에서는 1945년 12월 8일, 「상무정신 함양에 조선유도를 장려하라(尙武精神涵養에 朝鮮柔道を 獎勵하라)」는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한국의 미군정청 학무국에서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각 학교에서 무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이러한 방침에 대해 당시 우국(憂國)의 무도인과 일부 교육자들은 반대의 목소리 높이고 있었다. 학교 무도의 폐지와 관련하여 이경석은 신문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유도의 역사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유도를 일본 것으로 알고 경솔히 학교 과목에서 빼자는 것은 너무도 조선의 과거 숭고한 역사를 모르는 말이다. 유

6) 이와 관련해서는 이승수의 「미군정기 재단법인 강도관 조선지부의 처리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사학회지』 23(3), 한국체육사학회, 2018, 5~8쪽을 참조 바란다.

도가 근세에 와서는 일본서 더 발달한 것이지만은 이것은 옛날 신라 때에 처음으로 생긴 우리들의 무도이다. 이것은 우리 역사상 문헌이 잘 증명하고 있는 사실이다. 현재 동서 각 문명국에서도 이 유도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터인데 조선에서 이것을 배제하려는 것은 큰 착오로 보지 않을 수 없다. 학교 행정 당국에서는 실제 사정을 잘 알아보고 이것을 더 발전시킬 방법을 세워주길 바란다.

이경석은 유도가 신라 때에 처음으로 생긴 한국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그는 학교 당국에서는 유도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세우도록 간구했다. 이경석의 발언을 통해 유도가 한국 것이라는 주권 의식과 미군정청 당국에 의해서 한국 내에서도 유도가 금지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서술하였듯이 이경석은 젊을 때부터 한국과 일본에서 유도를 수련해 왔고, 또 1931년부터는 서울에 유도 도장 조선연무관을 설립하여 학생들을 비롯한 많은 이들에게 유도를 지도해 왔다. 그런 이경석에서 유도 활동의 금지는 그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이었다.

위 신문 기사와 관련하여 1946년 11월 3일 경향신문 기사 ‘유도 승단 진급 시험(柔道昇段 進級試合)’에는 이경석의 흥미로운 발언이 있다. 그것은 ‘유술이 조선의 것이라는 문헌도 인쇄 배포할 터이라 한다’고 했던 점이다.<sup>7)</sup> 여기서 말하는 문헌은 사실 같은 날 이경석이 배포한 「우리 柔術(柔道)에 對한 史的考察」이라는 자료이다. 이 글에서 이경석은 유술(유도)이 한국 것이라는 역사적 근거 자료 중 하나로 권법을 가져왔다.<sup>8)</sup>

재단법인 조선연무관에서 초기에 공수 혹은 당수를 사용하다 권법을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한 시점은 1947년 11월 5일부터이다.<sup>9)</sup> 이 시기는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연합국 최고사령부(GHQ)에 의해 일본 무도가 금지된 상황과 맞닿아 있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경석이 유도부에서 유술(유도)의 역사성을 논의할 때 권법을 사용한 것과 권법부에서 사용한 권법을 같은 개념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볼 것인가라는 점이다. 필자는 이경석이 양자를 구별한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같은 것이라 보고 있다. 다른 하

나는 조선연무관 권법부에서 가르친 권법의 실체가 무엇인 가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권법이 일본의 공수도인지, 아니면 조선시대까지 존재했던 권법 그 자체인지, 혹은 중국의 권법이었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 단계로서는 적은 사료를 통해서 그 전모를 밝혀낼 수 없어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관련하여 조선연무관에서 사용해 왔던 무도의 명칭이 공수 혹은 당수에서 권법으로 바뀌면서 단순히 명칭만 바뀐 것인지 아니면 내용도 함께 바뀌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다만 단언할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권법을 지도했던 초기 지도자의 무도 경력과 제자의 증언을 놓고 볼 때 일제하에 한국에 소개된 공수도도 포함되었을 개연성은 높다.

그렇다면 이경석이 어떤 의도에서 권법이란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을까. 이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그의 권법부에 어떤 장점이 있었을까. 이점에 대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재고할 필요가 있다. 잠시 재단법인 조선연무관 권법부의 권법 용어 사용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자.

허인옥은 조선연무관이 ‘당수(唐手)’나 ‘공수(空手)’를 사용하지 않았다(허인옥, 2007)고 지적한다. 즉 그는 조선연무관 권법부의 명칭에 대해서 ‘공수도’, ‘당수부’라는 명칭으로 기재되어 혼선을 일으킨다고 하면서 당시 조선연무관 최초의 공식 명칭은 권법부라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그는 이종우와 이교윤의 증언을 토대로 삼았다(허인옥, 2007). 그러나 김영선의 연구에 의하면 비록 신문 기사 내용을 토대로 한 것이지만 재단법인 조선연무관은 초기에 당수와 공수를 혼용했던 사실은 분명하다(김영선, 2018). 다만 김영선이 재단법인 조선연무관 권법부의 무예 명칭 변화의 근거로 제시한 신문 기사 속 명칭(공수, 당수, 권법)은 기자의 주관적 정보인지, 아니면 이경석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기자가 작성한 객관적 정보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1947년 11월을 기점으로 이후부터는 3건의 예외를 제외하면 대부분 권법이란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sup>10)</sup> 재단법인 조선연무관 권법부의 명칭 사용과 관련하여 광복 직후 5대관<sup>11)</sup>에서 사용한 명칭은 ‘당수’ 또는 ‘공수’가 대다수였고(김영선, 여인성, 2020), 이후에 권법으로 변경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7) 柔道昇段 進級試合(1946.11.03.) 경향신문(김영선, 위의 논문, 122쪽 재인용)

8) 이와 관련한 구체적 논의에 대해서는 이승수의 「미군정기 이경석(李景錫)의 柔術(柔道)의 역사론 재고」, 『무예연구』 17(1), 한국무예학회, 2023, 8쪽을 참조 바란다.

9) 권법 연무대회(1947.11.05.), 조선중앙일보, p.2.

10) 3건은 1947년 11월 5일 조선중앙일보에서의 권법·당수와 1950년 3월 26일 연합신문에서의 권법·당수도, 1950년 4월 4일 동아일보에서의 권법·당수도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김영선·여인성, 앞의 논문 58쪽 참조 바란다.

11) 청도관, 조선연무관, 기독청년회, 송무관, 무덕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 무도 금지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경석은 1947년 11월 10일 미군정청 적산관리처에 유도는 한국 것이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sup>12)</sup> 이와 비슷한 시기에 이경석은 재단법인 조선연무관 권법부에서 종래 사용했던 당수, 공수 대신 권법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경석이 공수, 당수에서 권법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본격적으로 사용한 데에는 나름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이경석의 권법 인식론과 관련이 깊다. 권법의 역사성에 대해서는 일제하 신채호, 안자산 등 연구자들에 의해 이미 많이 강조해 왔었다. 이경석은 권법은 신라시대 화랑의 무예였고 고려,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어왔다는 것이다(이승수, 2023). 이경석은 신채호, 안자산의 권법 역사관에 영향을 받았고, 또 그러한 역사관을 원용하여 한국 유도역의 역사에 적용했으며, 권법부의 권법에도 적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수와 공수는 일제하 일본에서 유입된 신조어였고 신생 무도였다. 당수, 공수에서 권법으로의 명칭 변경은 시대적 상황 전개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이경석의 선택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만에 하나 미군정청 학무국에서 당시 일본 무도의 한 종류로 인식하고 있었던 유도뿐만 아니라 당수, 공수를 금지하게 되면 재단법인 조선연무관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경석은 권법이 일본 무도가 아니라는 사회적 인식이 있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경석의 권법에 대한 인식론은 이후 황기의 『花手道教本』(1949), 최석남의 『拳法教本』(1955), 그리고 박철희의 『破邪拳法』(1958), 최흥희의 『跆拳道教本』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석남의 『拳法教本』에 추천사를 작성한 김천경과 최석남 자신의 권법 인식에서 잘 나타난다. 이들은 기록 속에 등장하는 맨손 무예는 중국의 불교에 영향을 받았고 삼국시대에 존재했으며, 당시 화랑들의 무예가 권법이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권법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도 이어졌는데 이러한 역사적 전통성을 일제가 엄금했다고까지 강조했다(김산·박세현, 2015). 또한 당시 권법 지도자들 사이에서 권법의 역사적 전통성을 통해 잃어버린 우리 문화의 주권을 되찾아야 한다는 논리로 정착되어 갔다. 이러한 문화 주권 회복 운동은 당시 미군정청에서 추진한 민주화 정책과 맞물려 장점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 2) 재단법인 조선연무관 권법부의 지도 사범

이러한 이경석의 권법 인식을 토대로 재단법인 조선연무관 권법부가 1946년 3월 2일에 설립되었다. 그렇다면 권법부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는 누구였고, 또 권법 기술을 지도한 인물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허인옥(2007)은 조선연무관 권법부를 창설한 인물이 전상섭(田祥燮)이라고 주장하였고, 김영선(2019)과 김영선·여인성(2020) 또한 같은 주장을 했다(김영선, 2019; 김영선·여인성, 2020; 허인옥, 2007). 또한 허인옥은 전상섭이 권법 혹은 오기나와에서 유래한 당수, 공수를 수련했다고 주장했다(허인옥, 2007). 그런데 허인옥은 윤병인의 권법 수련 내용에 대해 언급했으나 전상섭이 어떠한 권법을 누구에게 어떻게 배웠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다만 조선연무관 권법부 초기 수련 내용에 가라테 외에 윤병인의 영향을 받은 권법도 교습이 되었을 가능성을 열어두었다(허인옥, 2007).

또한 허인옥(2007)은 전상섭의 조선연무관 권법부 설립 배경에 대해 전상섭이 학창 시절 유도를 수련하고, 귀국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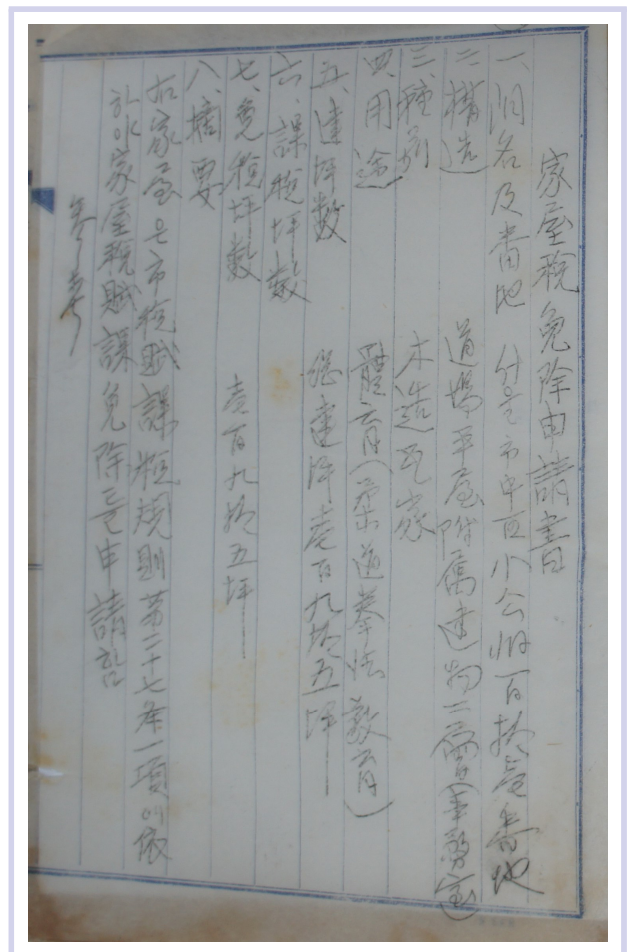


그림 1. 가옥세면제신청서 (출처: 필자 소장)

12) 진정서와 관련해서는 이승수(2018). 앞의 논문. 8~10쪽을 참조 바란다.

표 1. 전상섭의 무도 및 체조 활동 이력

| 연월일        | 기관              | 내용                       |
|------------|-----------------|--------------------------|
| 1921       |                 | 출생                       |
| 1940.06.28 | 조선연무관 유도부       | 승단 진급 심사에서 1급<br>甲 취득    |
| 1942.11.29 | 조선연무관 유도부       | 제22회 승단 진급 심사에서<br>2단 취득 |
| 1946.07.24 | 조선연무관 당수부       | 7월 1일부터 20일까지<br>모셔수련 지도 |
| 1948.04.24 | 조선체조경기연맹<br>경기부 | 체조 경기위원 위촉               |

조선연무관으로 개명되는 일본 강도관 조선지부 도장에서 무예를 연마하면서 유도 유단자들을 대상으로 가라테와 유도를 교습한 데 있었다(허인옥, 2007)고 했다. 그러면서 강기석(2001)의 글을 인용하여 전상섭의 권법부 설치 배경이 분명치 않다고도 했다(허인옥, 2007: 17). 허인옥이 말하는 전상섭의 ‘귀국 후’는, 언제, 어느 나라에서 귀국했는지 알 수 없다. 또한 전상섭이 ‘가라테를 교습’했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근거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과연 전상섭이 조선연무관 권법부를 설립하였을까. 필자는 조선연무관 권법부를 설립한 인물은 전상섭이 아닌 이경석이라 생각한다. 강기석(2001)에 의하면 ‘전상섭은 이경석의 허락을 받아 도장의 절반 정도에 공수도부 간판을 내걸고 관원을 모집했고, 그 시기가 1946년 3월 3일’(강기석, 2001)이라고 한다. 여기서 ‘도장의 절반 정도에’라는 표현은 조선연무관 도장 전체 공간의 절반을 빌렸다는 뜻인지 분명하지 않다. 또한 ‘공수도 간판’을 내걸었다면 조선연무관 권법부와 별개인지 분명하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이경석이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김형민에게 제출하기 위해 1948년 3월 8일에 작성한 ‘공익재단법인 조선연무관 세금(가옥세) 면제원’에 의하면 용도는 체육(유도, 권법 교육)이었다.<sup>13)</sup>〈그림 1 참조〉 이는 당시 조선연무관에서 유도와 권법을 지도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김영선은 재단법인 조선연무관 창립 1주년 기념식 사진 속 등장인물 소개에서 이경석 조선연무관 관장, 전상섭 관장으로 소개하고 있다(김영선, 2018). 즉 이경석은 유도부 관장, 전상섭은 권법부 관장으로서 동격으로 읽힐 수 있다. 한편 1948년 6월 20일에 개최한 ‘제4회 권법 연무대회 기념’ 사진 속 인물들의 설명에서 김영선은 이경석과 전상섭을 ‘조선연무관 관장 이경석, 권법부 사범 전상섭’으로 소개

하고, 또 ‘이경석은 전상섭의 유도 스승이었으며 그에게 조선연무관에서 권법부 개설을 승낙한’ 인물이었다(김영선, 2018)고 한다.

이같이 종래 연구에서는 1946년 3월 2일 조선연무관 권법부는 설립자인 전상법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이다(김영선·여인성, 2020; 정경원, 2016; 허인옥, 2007). 한편 김영선은 전상섭의 무예 경력 논의에서 그의 무예 경력에 모순점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상세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했다(김영선, 2018).

김영선이 지적한 전상섭의 무예 경력에 대해 잠시 살펴보자. 전상섭의 유도 경력을 보면, 일제하 조선연무관에서 취득한 유도 급과 단은 다음과 같다. 전상섭은 1940년 6월 28일 조선연무관에서 실시한 승단 진급 심사에서 1급<sup>14)</sup>, 1942년 11월 29일 제22회 승단 진급 심사에서 2단<sup>15)</sup>을 취득하였다. 또 1946년 7월 1일부터 20일까지 당수부 지도자로서 활동했고<sup>16)</sup>, 1948년 4월에는 조선체조경기연맹 경기부 위원으로 위촉되었다.<sup>17)</sup> 이처럼 전상섭은 광복 이후 당수부와 체조 지도자로 활동했다.

전상섭은 1921년생이다. 위 내용에 따르면 전상섭이 19세에 1급, 21세에 2단을 취득한 셈이다. 이 기간에 전상섭이 일본에 건너가 당수(공수)를 배웠을까. 만약 그렇다면 2단을 취득한 이후에 일본에 건너갔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개연성은 적어 보인다. 그 까닭은 1942년 말 일본에 건너가 당수(공수)를 배우기 시작했더라도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을 맞이했고, 1950년에 6.25 전쟁이 발발한 상황 속에서 공수도를 습득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가령 공수도를 배웠다고 하더라도 당시 일본공수도연맹의 규정에 따르면 예를 들어 3단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2단 취득 후 1년 이상을 요구하고, 4단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3단 취득 후 2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했다.<sup>18)</sup> 광복 이후, 전상섭이 일본에 건너가 공수도를 수련했다 하더라도 사범 수준의 실력을 쌓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허인옥, 김영선 등의 논리라면 조선연무관이라는 하나의 건물 안에 기존의 유도부와는 별개로 권법부가 새로 설립된 셈이다. 이 권법부를 창설한 인물은 전상

13) 이경석. 1948.03.08. 공익재단법인 조선연무관 세금(가옥세) 면제원.

14) 朝鮮研武館(1940.07.09.). 조선일보, p.2.

15) 柔道新昇格者(1942.12.18.). 경성일보, p.2.

16) 研武館冒署修練(1946.07.24.). 自由新聞, p.2.; 研武館唐手部進級(1946.07.24.), 中央新聞, p.2.

17) 體操競技委員(1948.04.24.). 現代日報, p.2.

18) 『공익재단법인 일본공수도연맹 부속기관·기술자격에 관한 규정(公益財団法人全日本空手道連盟付属 機関・技術 資格に関する諸規程)』(출처:https://www.jkf.ne.jp/)

섭이 아니라 이경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 까닭은 다음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전상섭이 조선연무관 권법부의 사범으로 취임했다는 점이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래 〈그림 2〉의 1946년 3월 5일 신문 기사<sup>19)</sup>와 〈그림 3〉 이경석이 작성한 1950년도 세출 예산서이다. 전자의 경우 전상섭이 조선연무관에서 3월 2일부터 사범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또 그는 일본 토요대학(東洋大學), 센슈대학(專修大學),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 공수부에서 다년간 사범으로 활동했다고 소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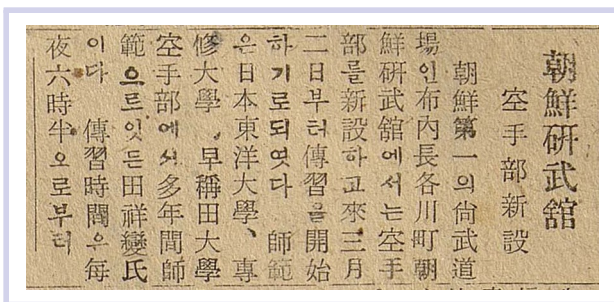


그림 2. 朝鮮研武館 空手部新設

후자인 세출 예산서에 의하면 사무비 중 인건비로 전년도 예산 3만 원에서 8만 원으로 5만 원이 계상되었다. 인건비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사무원 2명과 유도부, 권법부 각 1명씩 총 2명의 사범에 대한 인건비였다. 이는 권법부 사범 1명에게 인건비를 지급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대상이 전상섭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朝鮮研武館 1950년도 세출 내역 (사범 인건비)

(출처: 필자 소장)

다음, 이경석이 1950년 6월에 작성한 ‘재단법인 조선연무관 사업 보고에 관한 건’에 따르면 재단법인 조선연무관

의 이사장은 이경석이었다. 〈그림 4 참조〉 또한 이경석은 당시 각 지역에 조선연무관 지부를 두고 있었다. 따라서 전상섭은 이경석에 의해 고용된 사범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 까닭은 당시 존재했던 타 무도관에서도 두 명의 관장이 하나의 도장을 운영하는 사례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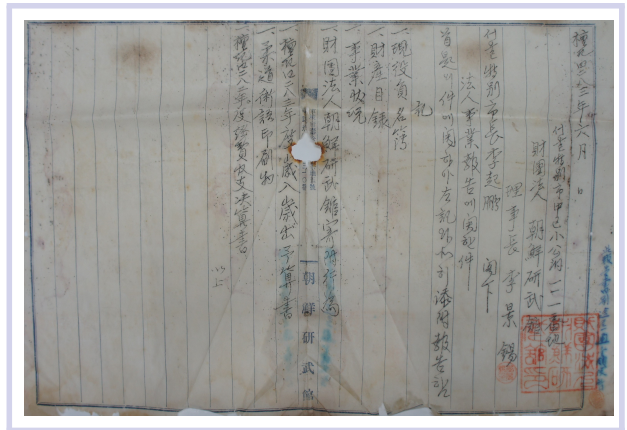


그림 4. 재단법인 조선연무관 사업 보고 건

(1950년 6월, 출처: 필자 소장)

마지막으로 후술하는 바와 같이 재단법인 조선연무관에서는 1946년 5월 31일부터 유도부와 권법부의 계절 수련(모서수련, 모한수련)과 승단 진급 시험을 같은 날에 실시해 왔다는 점이다. 만약 같은 건물 내에 서로 성격이 다른 두 단체가 존립했다면 같은 날에 유도부와 권법부의 계절 수련과 승단 진급 시험 개최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당시 이경석이 재단 이사장이었기에 때문에 가능했었다. 만약 전상섭이 관장이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따라서 전상섭은 이경석에 의해 고용된 권법부 사범이었지, 설립자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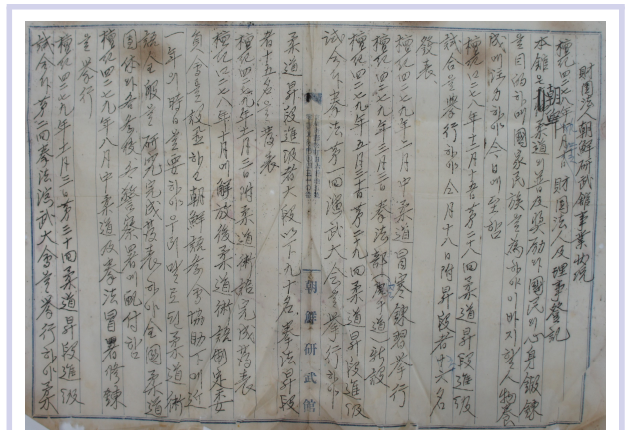


그림 5. 재단법인 조선연무관 사업 상항

(1950년 6월, 출처: 필자 소장)

19) 朝鮮研武館 空手部新設(1946.03.05.). 광주민보, p.2.

### 3) 재단법인 조선연무관 권법부의 활동

당시 재단법인 조선연무관 권법부의 수련 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고, 또 수련생들의 수준에 맞춰 어떠한 방식으로 수련이 실제 이루어졌는지 그 전모를 명확하게 밝힐 수 없다. 다만 원로의 기억과 신문기사를 통해 일부 내용에 대해 이해할 뿐이다(김영선, 2018).

지금까지 조선연무관 권법부의 기록은 주로 전상섭의 제자인 이종우와 동생인 전일섭의 증언에 기초하고 있다. 전일섭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수련생은 17~20세 전반이 많았다. 무도를 강조한 나머지 자유 연습보다 대련과 형을 중심으로 한 수련이었다. 또 수련생의 관변(館番)은 입관 날짜와 단을 고려해서 정했다(정경원, 2016). 한편 이종우의 증언에 의하면, 중국식 권법과 주로 정권 지르기를 중심으로 연습했고, 판자나 기와를 깨는 격파 연습을 했다. 그러나 격파 연습은 재료 구매에 돈이 들기 때문에 형(型)과 대련 중심의 수련을 했다(정경원, 2016). 당시 일본의 공수도 수련처럼 타격 직전에 멈추는 방식이다. 즉 손도메(寸止)방식이었다(정경원, 2016). 이와 같은 일반적인 권법 수련은 매일 오후 6시 반부터 시작했다.<sup>20)</sup>

일반적인 수련 외에 혹서기와 혹한기에 실시하는 모서수련(冒暑修鍊)과 모한수련(冒寒修鍊)이 있다. 모서수련은 1946년 8월부터 매년 시작하였고, 보통 10~20일간 실시했다. 모서수련이 끝날 무렵에 첫 승급심사가 거행되었다. 승급 급수는 초급, 중급으로 나뉘어져 있었다(김영선, 2018). 또 모서수련과 모한수련은 유도부와 함께 실시했고, 늦은 오후 같은 시간에 한 시간씩 수련했다. 한편 모한수련은 겨울 추위를 이겨내는 정기 수련으로 통상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약 10일간 실시했다(김영선, 2018). 모한수련은 일제하 타 단체에서도 실시해 왔다. 예를 들어 조선무도관에서는 1924년 2월 2일부터 3주간 혹한기에 아침 5시부터 모한수련을 실시했다(柳東弦·大林太郎, 2023).

이같이 모한수련, 모서수련 방식과 시기는 일제하에 이미 한국 내에 보급된 유도, 검도 등 타 무도 단체에서 실시해 왔던 것이었다. 또한 일본에서도 무도 수련의 일반적인 형태였다. 예를 들어 한계고(kangeiko, 寒稽古)는 추운 시기인 겨울에 실시하는 수련이다. 이것은 유도의 특수한 수련 방법으로 소한부터 대한까지 사이 이른 아침 추위에 굴하지 않고 고통을 견디며, 노동을 견딜 수 있는 심신을 단

련하는 수행이다. 강도관에서는 1884년 무렵부터 시작했다. 한편 서중계고(shocyu geiko, 暑中稽古)는 더운 시기인 여름에 하는 수련을 뜻한다. 이 또한 유도의 특수한 훈련 방법으로 더위를 이길 수 있는 체력과 기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수행을 의미한다. 강도관에서는 1896년부터 시작했다(講道館, 2000).

이러한 강도관 유도의 계절 수련은 일제하 한국의 강도관 조선지부에서도 실시해 왔고, 이경석 또한 조선연무관을 설립하여 유도를 지도할 때 적용해 왔던 방식이었다. 따라서 모서수련은 서중계고(暑中稽古)에 대응하고, 모한수련은 한계고(寒稽古)에 대응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경석이 유도부와 권법부에서 같은 시기에 모서수련과 모한수련을 실시한 점을 고려했을 때, 일제하 강도관의 유도 수련방식을 한국식으로 변환하여 적용했다고 볼 수 있다.

조선연무관 권법부가 개설되고 두 달 후인 1946년 5월에 제1회 연무대회와 승단심사를 개최했다. 당시 승단자는 15명이었다. 이후 조선연무관 권법부에서는 1년에 2회(6월과 11월)에 걸쳐 정기적으로 연무대회를 개최했다. 이는 승단, 진급 심사를 겸한 행사였다.

행사 장소는 동관 수련장이었고 일반 사람의 참관을 여러 신문을 통해 홍보했다. 연무대회는 관원들의 무예 실력을 공개적으로 시범함으로써 수련 목표 부여와 실력 향상을 도모한다. 아울러 외부 일반인들의 관심을 유도함으로써 무예 단체의 존재를 널리 알리고 관원 모집을 광고하는 효과도 올릴 수 있다(김영선, 2018: 125, 127).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조선연무관 권법부의 수련생 수는 점차 증가했다. 아래 <표 2>는 조선연무관 권법부 설립 이후 전개한 각종 활동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연무관 권법부의 활동은 유도부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평소의 수련, 혹서기와 혹한기에 열리는 수련(모서수련, 모한수련), 승급 및 승단심사, 그리고 연무대회를 계속해서 개최해 왔다. 이들 활동은 그 시작 시점을 달리하였고, 때로는 중지한 경우도 있었으며 규모도 달랐다. 그러나 이러한 정기적 활동은 권법부의 발전 및 보급을 위한 토대가 되었다.

그러나 6.25전쟁으로 인해 재단법인 조선연무관은 활동을 중단하게 된다. 그러던 중 1952년 3월부터는 대한유도회 측 이제황, 이지영, 석진경(전 YMCA 유도부 장관 문하생) 등이 입경하여 재단법인 조선연무관의 간판을 떼고 대

20) 朝鮮研武館 空手部新設(1946.03.05.). 광주민보, p.2.; 김영선(2018), 앞의 논문, 119쪽.

표 2. 재단법인 조선연무관 유도부와 권법부의 활동(1945년~1950년)

| 연월일               | 유도부                                                               | 권법부                          | 비고                             |
|-------------------|-------------------------------------------------------------------|------------------------------|--------------------------------|
| 1945년 10월         | 조선어학회 협조하에 1년 여 동안 한글 유도 술어 전반 연구 완성 발표. 전국 유도단체와 각 학교, 경찰서에 배포함. |                              |                                |
| 1945년 12월 15일     | 제28회 유도 승단 진급 시험                                                  |                              |                                |
| 1945년 12월 18일     | 승단자 6명 발표                                                         |                              |                                |
| 1946년 2월          | 유도 모한(冒寒) 수련                                                      |                              |                                |
| 1946년 3월 03일      |                                                                   | 권법부(唐手道) 신설                  |                                |
| 1946년 5월 30(31)일  | 제29회 승단 진급 시험 . 승단 진급자 6단 이하 90명 발표                               | 제1회 연무대회. 승단자 15명을 발표        |                                |
| 1946년 8월          | 모서(冒暑) 수련                                                         | 모서 수련                        |                                |
| 1946년 11월 3일      | 유도 술어 완성 발표                                                       |                              |                                |
| 1946년 11월 24일     | 제30회 승단 진급 시험. 승단진급자 5단 이하 131명 발표                                | 제2회 연무대회. 승단자 37명 발표         |                                |
| 1947년 2월          | 모한 수련                                                             | 모한 수련                        |                                |
| 1947년 6월 22(21)일  | 제33(31)회 승단 진급 시험                                                 | 제3회 연무대회                     |                                |
| 1947년 7월 7(1)일    | 승단진급자 6단 이하 82명 발표                                                | 승단진급자 100명 발표                |                                |
| 1947년 8월          | 모서 수련                                                             | 모서 수련                        |                                |
| 1947년 11월 26일     | 제32회 승단 진급 시험 .승단진급자 5단 이하 125(135)명 발표                           | 제4회 연무대회. 승단진급자 114(104)명 발표 |                                |
| 1948년 2월          | 모한 수련                                                             | 모한 수련                        |                                |
| 1948년 6월 20일      | 유도 술어 보완 재판 배포                                                    |                              |                                |
| 1948년 8월          | 모서 수련                                                             | 모서 수련                        |                                |
| 1949년 6월 22(20)일  | 제33회 승단 진급 시험                                                     | 제5회 연무대회                     |                                |
| 1948년 11월 13일     | 제36(34)회 승단 진급시험                                                  | 제8회(6회) 연무대회                 |                                |
| 1948년 11월 19일     | 승단진급자 6단 이하 206명(114명) 발표                                         | 승단진급자 132명(119명) 발표          |                                |
| 1949년 2월          | 모한 수련                                                             | 모한 수련                        | 유도와 권법의 중간 시험은 매년 대회가 없는 달에 거행 |
| 1949년 6월 18일(10일) | 제37회(35회) 승단 진급 시험                                                | 제9회(7회) 연무대회                 |                                |
| 1949년 7월 1일       | 승단진급자 5단 이하 146명 발표                                               | 승단진급자 82(12)명 발표             | 확인요                            |
| 1949년 7월 2일       | 진급자 7단 3명, 이하 132명 발표                                             | 승단진급자 178명 발표                |                                |
| 1949년 8월          | 모서 수련                                                             | 모서 수련                        |                                |
| 1949년 11월 10일     | 제36회 승단 진급 시험                                                     | 제8회 연무대회                     |                                |
| 1949년 11월 19일     | 승단진급자 6단 이하 206명 발표                                               | 승단진급자 132명 발표                |                                |
| 1950년 2월          | 모한 수련                                                             | 모한 수련                        | 유도와 권법의 중간시험은 매년 대회 없는 월에 거행   |
| 1950년 6월 18일      | 제37회 승단 진급 시험                                                     | 제9회 연무대회                     |                                |

표 내용은 이경석이 1950년 6월에 작성한 '재단법인 조선연무관 사업 상황'과 김영선·여인성(2020)의 「현대 태권도의 원류, 조선연무관의 명칭과 창립 일자에 관한 연구」, 대한무도학회지, 22(2), 58쪽의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하였다. 괄호 안의 숫자는 이경석이 제시한 숫자임을 밝혀둔다.

한유도회와 대한유도학교(1953년 8월) 간판을 달아 사용하고 있었다.<sup>21)</sup> 이 시점부터 재단법인 조선연무관의 활동은 쇠퇴해 갔고 이경석과 대한유도회 간의 기나긴 법정 싸움으로 이어졌다.

## IV. 결론 및 제언

일제 하부터 1950년에 이르기까지 한국에 소개된 일본 무도는 유도, 검도, 당수술 등 다종다양했다. 특히 당수술은 1920년대 말부터 한국에 소개되기 시작했다. 1930년대

21) 이경석(1950). 조선연무관 연혁. 미간행.

말에는 한국 내 다양한 무도 단체를 통해 소개되었으며 또 교류도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광복 이후 당수술이 한국에 보급되는데 발판이 되었다. 본 논문의 목적은 광복 이후 재단법인 조선연무관 권법부의 설립과 전개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이경석과 전상섭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했다. 이와 관련한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광복 이후 재단법인 조선연무관 권법부는 무도의 일환으로서 기존의 유도부와 함께 이경석이 전개한 종목으로 위치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이경석이 유도는 1931년부터 적극적으로 국내에 보급하였던 반면에, 권법은 미군정기에 기존의 유도부와는 별개로 1946년 3월 2일 권법부를 설립 하면서부터 수련생에게 지도하기 시작했다. 또한 그는 승단 및 승급심사를 통해 수련생의 권법 실력을 가늠했으며, 모한훈련, 모서훈련, 연무대회 등을 통해 수련생들의 기량을 강화해 나갔다.

둘째, 미군정청 학무국의 일본 무도 금지 조치로 인해 이경석은, 1946년 이후 조선연무관 유도부와 권법부의 전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권법의 역사성을 활용하였다. 또한 재단법인 조선연무관 내에는 유도부와 권법부가 공존하고 있었고, 양자를 둘러싼 권법의 역사성은 명확하게 구별하지 않았다. 따라서 권법부의 권법 실체는 조선시대에 존재했던 그것과는 다르게 일제하 한국에 소개된 당수술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권법 용어를 사용한 데에는 일본 무도 금지라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하나의 선택지였다.

셋째, 1946년 3월 3일 재단법인 조선연무관 권법부의 설립을 계기로 권법을 직접 지도한 인물은 이경석에 의해 고용된 사범 전상섭이었다. 전상섭은 이경석에게 유도를 배운 제자였다는 사실은 명확하지만, 그가 지도한 권법은 전통적인 한국의 권법이었는지, 중국의 권법이었는지, 아니면 일제하에 소개된 당수술이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재단법인 조선연무관 권법부의 초창기 사범은 전상섭이었고, 이는 종래 연구에서 말하는 조선연무관 권법부의 설립자가 전상섭이 아니었음을 방증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재단법인 조선연무관 권법부는 광복 후에 새롭게 설립된 단체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권법부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놓고 볼 때 현대 태권도의 모체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재단법인 조선연무관 권법부를 둘러싼 시대적 상황은 기록의 오류에 따른 명칭 혼용, 인물에 대한 검증 미비로 인한 기록물의 객관성 저하라는 오류를 낳았다. 즉 권법의

역사적 사실을 둘러싼 기억 및 기록의 애매함은 후속 연구자의 자의적 판단과 해석을 낳게 했고, 나아가 이는 후대 연구자들의 연구에 많은 걸림돌로 남았다.

## References

- 강기석(2001). 태권도 半世紀-인물과 역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김산·박세현(2015). 초창기 태권도 교본 연구. 한국체육사학회지, 20(3), 127-144.
- 김영선(2018). 현대 태권도의 원류, '오대관'의 형성과 사적(史的)의의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김영선·여인성(2020). 현대 태권도의 원류, 조선연무관 권법부의 명칭과 창립 일자에 관한 연구. 대한무도학회지, 22(2), 53-64.
- 이경석(1940). 半島人武道の沿革と我道場. 朝鮮武道, 10(1), 53-54.
- 이경석(1950). 조선연무관 연혁. 미간행.
- 이경석(1953). 조선연무관 연혁. 미간행.
- 이경석. 1950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미간행.
- 이경석. 공익 재단법인 조선연무관 세금(가옥세) 면제원(1948. 03.08.). 미간행.
- 이경석. 재단법인 조선연무관 사업 보고 건(1950.06.). 미간행.
- 이경석. 재단법인 조선연무관 사업 상황(1950.06.). 미간행.
- 이승수(2018). 미군정기 재단법인 강도관 조선지부의 처리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사학회지, 23(3), 1-15.
- 이승수(2023). 미군정기 이경석(李景錫)의 柔術(柔道)의 역사론 재고. 무예연구, 17(1), 1-32.
- 임석원·조문기(2009). 이경석(李景錫)의 생애와 유도(柔道)사상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7, 125-136.
- 조문기·임석원(2009). 일제강점기 조선연무관의 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체육학회지, 14(3), 81-92.
- 허인옥(2007). 태권도 모체관 중 "조선연무관권법부"와 "중앙기독청년회권법부"의 형성과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사학회지, 20, 13-28.
- 講道館(2000). 和英對照柔道用語小辭典. 동경: 財團法人 講道館.
- 富名腰(1925). 唐手術. 동경: 廣文堂.
- 井上俊(2004). 武道の誕生. 동경: 吉川弘文館.
- 柳東弦·大林太郎(2023). 日本植民地下朝鮮における姜樂遠の足跡に関する研究—主に1921年-1944年における剣道普及活動に着目して—. 身体運動文化研究, 28, 29-41.
- 정경원(2016). 테코ンドー의起源問題と競技スポーツの形成過程に関する歴史的的研究.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早稲田大学大学院.
- 근대 여성 당수술 연습(モダンガールが『唐手術』のお稽古)(1927.08.26.). 朝鮮新聞, p.3.
- 당수술 오미야 씨 방한(唐手術の大宮氏來る)(1929.10.04.). 京城日報, p.7.
- 당수술(唐手術)(1933.05.10.). 京城日報, p.1.
- 拓大空手部 府民館서 公演(1937.07.11.). 동아일보, p.2.

青年會柔道部에서 空手道實際示範(1937.08.13.), 동아일보, p.2.  
空手道 示範 昨夜, 盛況裡에 舉行(1937.08.15.), 조선일보, p.7.  
尙武精神涵養에 朝鮮柔道를 獎勵(1945.12.08.), 新朝鮮報, p.2.  
권법 연무대회(1947.11.05.), 조선중앙일보, p.2.  
柔道昇段 進級試合(1946.11.03.), 경향신문.  
柔道新昇格者(1942.12.18.), 경성일보, p.2.  
朝鮮研武館 空手部新設(1946.03.05.), 광주민보, p.2.

朝鮮研武館(1940.07.09.), 조선일보, p.2.  
研武館冒署修練(1946.07.24.), 自由新聞, p.2.  
研武館唐手部進級(1946.07.24.), 中央新聞, p.2.  
體操競技委員(1948.04.24.), 現代日報, p.2.  
<https://ja.wikipedia.org/wiki/山口剛玄>  
<https://www.jkf.ne.jp/>

## Research on the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the Kwonbeopbu department of the Chosun Yeonmugwan Foundation : Focusing on the period 1945-1950

Lee, Seung-Soo<sup>1\*</sup>

Chung-Ang University, Professor

### Abstract

**Propos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stablishment process and development of the Kwonbeopbu department of the Chosun Yeonmugwan Foundation, which experienced historical transitions such as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Liberation of Korea, and the American military regime.

**Method** The research method consists of historical documentary research using newspapers published at the time, Lee Kyung-seok's archives, literature, and previous studies. However, due to limitations in the literature, this paper focuses on the period from 1945 to 1950.

**Resul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Lee Kyung-seok established the Kwonbeopbu Department of the Joseon Yeonmugwan on 2 March 1946, and began to instruct trainees in Kwonbeop, judging their skills through the judgement of a panel, and strengthening their skills through seasonal training and performance competitions. Second, Lee Kyung-seok used the historicity of Kwonbeop to secure the tradition of the Kwonbeop after 1946. In particular, the name change from Tongsu and Gongsu to Kwonbeop was an option to deal with the crisis of the Japanese ban on martial arts. Third, an early master in the Kwonbeopbu department of the foundation was Jeon Sang-sup, who was hired by Lee Kyung-seok. It is not clear whether he taught traditional Korean Kwonbeop, Chinese Kwonbeop, or karate introduced under Japanese rule.

**Conclusion** It is clear that the Kwonbeopbu Department of the Joseon Yeonmugwan Foundation was a new organisation created after the liberation of Korea. However,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organisation makes it difficult to consider it as the parent organisation of modern Taekwondo.

**Keywords** the Kwonbeopbu department of the Chosun Yeonmugwan Foundation, Lee Kyung-Seok, Jeon Sang-Sup, the American military regime, Kwonbeop

논문투고일: 2023.10.31.

논문심사일: 2023.12.02.

심사완료일: 2023.12.19.

논문발간일: 2023.12.30.